

한화-현대 초고합량 EVA “경쟁”

한화, 2004년 본격생산 ... 울산 LDPE 병행설비 전환 3만톤 증설효과

그동안 현대석유화학이 독점해온 초고합량 EVA(Ethylene Vinyl Acetate) 시장에 한화석유화학이 공급을 시작함에 따라 경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화석유화학은 2003년 10월 약 62억원을 투자해 울산의 LDPE(Low-Density Polyethylene) 전용 생산라인에서 EVA 병행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고합량 EVA 생산기술도 확보해 2004년 1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합량 EVA는 주로 핫멜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국내 핫멜트 시장규모는 6000톤-65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현대석유화학이 수요의 대부분인 4000톤-50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나머지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4년 한화석유화학이 공급을 시작하면 수입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석유화학의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화석유화학 관계자는 “현재 샘플을 테스트 중이며 조만간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는 수입제품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판매하고 2005년 이후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대석유화학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석유화학이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에 따른 정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한화석유화학 울산공장의 EVA 생산이 시작되면 EVA 생산능력은 기존 3만톤에서 6만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2>